

‘자비’ 노래하는 인디밴드 촉마 ‘인기’

홍콩 젊은 뮤지션 5명 결성, 환경캠페인도 전개

깨달음과 인디 밴드의 음악 사이에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있을까? 다소 엉뚱한 질문 같지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1월 7일자 보도에 따르면,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에 따르면 홍콩의 젊은 뮤지션 5명이 2003년 인디 밴드 ‘촉마(Chock Ma ?麻)’를 결성한 이래 지금까지 ‘깨달음’, ‘공동체’ 등을 주제로 한 음악을 선보이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촉마의 음악적 배경이 불교음악”이라는 데 주목, “불교의 전통음악에 기반한 리듬과 가사가 대중을 움직이고 있다는 게 이채롭다”며 “이는 대중음악의 저변을 넓혔다는 차이를 넘어, 밴드 구성 악기의 개별적이고 즉흥적인 연주와 음향시인의 노래와도 같은 가사도 대중에게 호소력이 있다는 점이 새롭다”고 덧붙였다.

이는 촉마의 공연 무대에 등장하는 악기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여느 밴드 그룹처럼 기타나 드럼 같은 악기도 연주되지만, 중국의 전통악기 얼후(Erhu), 홀루시(hulusi), 티베트의 전통악기 ‘노래하는 그릇(singing bowl)’ 등이 촉마 무대에 매번 등장하기 때문이다.

“촉마의 음악 코드는 ‘긍정’”이라고 말한 제이슨 라우(Jason Lau·보컬·리더)는 “우리는 호주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처음 만났고, 서로



깨달음의 소리를 찾고자 ‘거리 공연’에 나서고 있는 인디 밴드 촉마(Chock Ma, 홍콩). 다섯 명의 젊은 뮤지션들은 거리 공연에서 ‘영적 깨달음’을 주제로 한 음악 공연을 펼치는 한편 ‘공동체의 삶’에 깊은 애정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003년 호주 워킹홀리데이에서 만나 결성

앨범 타이틀, 美 소설가 잭 케루악의 <진리를 찾아나선 방랑자> 인용 멤버 모두 채식주의자, 씨앗 심기 캠페인으로 자비·배려 전파

의 음악적 세계를 동경하며 2003년 인디 밴드 ‘촉마’를 결성했다”며 “처음에는 현대음악에서 대중과의 교감을 시도했지만, 멤버 모두 채식주의자였고, 결국 서로가 좋아하는 악기를 들고 음악, 철학, 종교의 경계를 넘나드는 음악을 만들자는 데 공의를 모아, 지금의 음악 세계를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촉마는 최근 ‘Expose the Nature from inside’이라는 앨범을 발매하기 시작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앨범 타이틀은 미국의 소설가 잭 케루악(Jack Kerouac)이 1958년에 발표한 소설 <Dharma Bum(진리를 찾아나선 방랑자)>의 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불교가 ‘Expose the Nature from

inside’라는 앨범의 단초가 되었다”고 설명한 데이비드 콕(David Kwok, 드럼)은 “그러나 앨범에 담겨진 노래와 연주는 동시대 젊은 뮤지션에게 보인 불교라는 게 더욱 정확하다”며 “이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밴드 멤버들 모두 채식주의자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촉마의 노래 ‘No Escape’의 “강과 호수가 메마르고/ 산하가 황폐해지고/ 하늘이 두려움이 가득할 때...”라는 가사를 인용, “촉마의 음악세계는 이제 환경 문제까지 넓어졌다”고 주목하고, “이는 최근 촉마가 앨범 발매와 함께 전개하고 있는 ‘씨앗 심기’ 캠페인과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씨앗 심기” 캠페인은 희망자들에게 레몬 잔디 씨앗을 나눠주고,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과정에 충실히 임했던 캠페인 동참자들에게는 촉마 공연 무료 관람권을 보내는 것으로 하고 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씨앗은 단지 씨앗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인디 밴드 촉마의 리더 라우는 “씨앗에서 수확이라는 목적지에 이르는 여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자비, 배려 등이 아닐까 싶었고, 이를 관객들과 나누고 싶었다”며 “씨앗 캠페인”의 기획 의도를 밝혔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불교에 기반한 젊은 뮤지션의 밴드 그룹이 대중들에게 어떤 여정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며 “촉마의 ‘씨앗 캠페인’을 페이스북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日 사찰서 송골 장례 서비스 인기

택배로 유골 받아... “지나친 상업화”



에히메 현의 이요군(伊予郡)에 있는 입불사에서는 유골을 택배로 받아 납골당에 안치하는 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다.

불교식 장례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 몇몇 사찰이 장례서비스를 지나치게 상업화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타임즈>지는 12월 4일자 신문을 통해 “일본의 사찰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다”며 불교 세속화의 단면을 비판한 바 있다. 최저 300만엔에서 시작하는 장례비용에 각종 부가서비스가 더해지면서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호화장례도 모자라 이제는 사찰에서 유골을 택배로 받아 안치하는 서비스까지 생겨났다. 유족들이 화장한 유골을 직접 사찰로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 ‘송골(送骨) 서비스’가 성행중이다.

에히메 현의 이요군(伊予郡)에 있는 입불사에서는 2011년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다. 유골을 관청에서 발급 받은 매장허가서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면 납골당에 50년간 안치한 후 공동묘지에 합사해준다. 이 과정에 드는 비용은 한화로 대략 55만원.

집적하다시피 이용객은 고인과의 관계 지속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혼한 여성이 사망한 전 남편의 유골을 보내기도 하고 왕래가 없었던 친인척의 유골처리를 부탁하는 경우도 많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입불사는 인터넷 광고를 등록한 후 500여 건에 달하는 유골 처리 신청을 받았다고 한다.

입불사 주지 야마다 스님은 송골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개는 고인과 깊이 관여되지 않더라도, 사찰이 고인을 돌보는 데 안도감을 느낀다”며 이용객이 아낀 시간은 아낌을 강조했다. 송골서비스를 두고 쏟아지는 항간의 비난에 대해 “무엇보다 비인간적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요군청은 최근 입불사가 납골당 건립과 관련해 제출한 건축허가서에 대해 사람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입불사는 즉각 마츠야마 지방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야마다 스님은 “돌아갈 곳 없는 이들을 위해 사찰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 달라”며 호소할 뜻을 밝혔다.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송골 서비스는 사찰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돌볼 이 없는 고인 위한 일”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에 있는 한 절에서도 10월부터 송골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시모토 주지 스님은 “최근 일본 내 출생률의 감소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사찰의 미래와도 직결된다”며 “사찰 스스로 존립하며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야 한다”고 말해 장례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사찰들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비쳤다.

앞서 <일본 타임즈>지는 “12월 3일 나라의 난토 주린-인(Nanto Jurin-in) 사원에서 일본 불교계 최고 지도자 30여 명이 모여 ‘불교 장례 서비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최고 지도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장례 서비스가 정신·재정적으로 사찰 존립의 근원’이며, 따라서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백현진 기자 iinus@hyunbul.com

베트남, 청년불교 지도법사 가택연금

르 콩 카이, 자유·인권 운동가로 불교계 안팎에서 주목

베트남 불교계와 국제인권단체의 반발 커져

베트남 청년 지도법사가 지난해 12월부터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다고 <자유 아시아 라디오(RFA)>가 보도했다.

가택 연금 중인 것으로 확인된 르 콩 카우(Le Cong Cau) 법사는 베트남 정부에 의해 반체제 인사로 지목, 지난해 12월 호치민 시에서 강제 연행된 이후 13시간 동안 트롱 안(Truong An) 지구 경찰서에 반국가 선동 관련 조사를 강도 높게 받고서 ‘가택 연금’ 조치됐다.

르 콩 카우 법사는 현재 ‘베트남 통일 불교 사원(Unified Buddhist Church of Vietnam, 이하 UBCV) 산하 청년 지도자도 활동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르 콩 카우의 연금 조처에 앞서, UBCV 단체를 반국가 단체로 규정할 바 있다.

“내가 강제 연금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보다는 정부가 분명히 더 잘 알고 있다”는 르 콩 카우의 말을 인용한 <자유 아시아 라디오>는 “지난해 12월 가택 연금 이후, 20여 명 인파의 경찰 병력이 그의 집을 에워싸며 외부와의 접촉을 막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 경찰 측에 따르면 르 콩 카우는 베트남 정부의 통일 정책을 반대하는 등의 ‘반국가 선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에서 이런 범죄는 최고 15~20년까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 르 콩 카우 법사의 강제 구금 및 가택 연금에 대해 세계 인권 단체의 반응이 날카롭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FIDH)과 그 산하 베트남위원회(VCHR),



지난해 12월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열린 ‘베트남 통일 불교 사원(Unified Buddhist Church of Vietnam)’의 연말 모임에 참석한 르 콩 카우(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그는 이 모임이 끝난 직후 강제 구금되어, 지금까지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다.

국제 엠네스티 등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노 스님을 만나기 위해 호치민 시를 방문한 르 콩 카우를 강제로 체포하고 가택 연금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현 정부는 UN이 정한 Vesak Day(일명 ‘부처님오신 날’)를 개최하고 있는 정부는 종교의 권리

를 충분히 보하고 있다”며 “이번 르 콩 카우의 가택 연금은 사회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정부에게 비판적 견해를 비친 인사와 단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는 민주개혁을 주장하는 ‘파워 불로가’, ‘노동 운동자’, ‘토지 권리 운동가’, ‘인권 운동가’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력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기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식, 중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묵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요(괘불이요), 대령, 관육, 옹호계(신중적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제, 지장정, 시왕도정, 전신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집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특 강 : 종사이요,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타법(다비), 예수재의식 등
2. 개강식 및 수업일시
 - 개 강 식 : 2014년 3월 6일(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북성9길 28(북성리 1095) 대한불교승가대총종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갑오년 새해 첫 무료보시 단행

- 법당ئم프 일절 설치주문시 ➔ 무선마이크 1세트 추가 무료보시
- 법당전용스피커만 주문시 ➔ 고급 YD-675 마이크 무료보시

(무료 보시 기간 : 2014년 1월 29일 까지 주문분에 한함) 위 기간내 주문하실 경우 실제 설치는 2월 중에도 설치 해 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k-308 표준 법당ئم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당전용 스피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능 구즈넥마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마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내믹 마이크 V-620 : 65,000원 / YD-675 : 1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 문화 / 음향연구가, 무선설계사 /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 010-5335-2695 /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